

Q [기구소독] 다제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들기구는 물로 세척하기 전 소독제에 먼저 넣은 후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요.. 병원에서는 세척이 먼저라고 하시네요...
혹시 소독제에 먼저 담가놓는다면 분비물이나 혈액이 묻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? 환자마다 소독제통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건지....

A: 기구소독 전 적절한 세척제(예, 효소세정제)로 세척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병원마다 병원 상황에 따라 사용 부서에서 1차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, 세척·소독·멸균 전 과정을 중앙공급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병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환자마다 소독제통을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나 감염원이 환경과 직원에 노출될 것을 고려하여 감염원에 따라 일반기구와 오염기구통을 분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.

Q : 혹시 기본간호처럼 감염기본 매뉴얼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???

A :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출간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(한미의학),
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출간된 감염관리학(현문사)이 있습니다.

Q : 저희는 일반 기구(물: 태고=10:1), 감염 기구(물: 바이오스팟=1000:1)로 희석하는데요.

A: 아래 <소독과 멸균에 대한 미생물의 내성 수준>을 참조하시면, 미생물 종류에 따라 필요한 소독 수준을 다르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의료환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제내성균은 아래 영양형세균에 해당됩니다. 영양형세균은 낮은 수준의 소독이면 충분하므로 소독제의 종류가 다를 필요는 없으며, 다제내성균이 분리된 환자사용 기구와 일반환자 사용기구 소독을 위해 세척 및 소독제 침적 시 따로 분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제내성균 외 결핵이나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물은 높은 수준의 소독 이상의 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염 기구라 하더라도 미생물의 내성 수준을 고려하시고,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소독제 희석 농도는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.

| 내성강도 | 예 | 소독 멸균 수준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프리온 | CJD | 프리온 멸균 방법 |
| 세균 아포 | Bacterial spore (<i>Bacillus atrophaeus</i>) | 멸균 |
| Coccidia | Cryptosporidium | |
| 항산균 | Mycobacteria (<i>M.tuberculosis, M.terrae</i>) | 높은 수준의 소독 |
| 비지질 또는 소형 바이러스 | Polio, Coxsackie | 중간 수준의 소독 |
| 진균 | <i>Aspergillus, Candida</i> | |
| 영양형 세균 | <i>S.aureus, P.aeruginosa</i> | 낮은 수준의 소독 |
| 지질 또는 중형 바이러스 | HIV, Herpes, Hepatitis B | |

Page 24

감사합니다.